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선언”

민주 안호영 도지사 경선후보, “낙후 전북 돌파 위해... 2028년 새만금 공항 개항 맞춰”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후보가 26일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선언했다.

안 후보는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리즈 공약 여섯 번째인 '스포츠 콕약' 발표를 통해 “낙후 전북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과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된다”면서 “2028년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올림픽을 유치하면, 정부 예산으로 관련 인프라를 대거 구축할 수 있고 글로벌 기업의 참여를 통해 전북경제 대전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지역 및 14개 시·군에서 종목별로 분산해 경기를 치른다면, 우리 전북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대회가 끝난 후에는 스포츠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해 스포츠마케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또, 전북도체육회의 경비 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우선 ‘체육경기 지원 조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후보가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례를 제정해 전북도체육회와 시·군 생활체육 지원을 늘리고,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모든 도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육선수 발굴뿐 아니라 장기 지속 가능한 생활체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이 선순환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민

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방안도 내놨다.

안호영 후보는 “임기 내에 올림픽을 유치해 전북경제와 스포츠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올림픽은 스포츠 활성화와 체육 복지, 경제 활성화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결선투표, 새로운 전북시대로 가는 관문”

민주 김관영 도지사 경선후보, “구태정치 커넥션 끊어내야... 민주당 정체성은 대통합에”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후보가 “이번 결선투표는 새로운 전북시대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후보는 “전북을 망치는 적폐는 구태정치로 규정하고, 이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후보는 결선 투표가 시작된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정치 브로커’ 사태를 언급했다.

김 후보는 “정치 브로커들과 국회의원·단체장이 연루된 ‘구태정치 커넥션’이 전북 정치를 망치고 있다”며 “이는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민주당 당원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은 원칙대로 철저하고 신속히 수사에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어, “민주당의 정체성과 정체성은 대통합과 정치개혁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무능한 구태정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의 길이 아니다”며 “무능한 구태정치 후보의 악의적 흑색선전은 이재명의 대통합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해당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에게도 “민심이 떠나기 전에 신속하게 진상규명하고 관련자를 조치해서, 민주당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구태정치 커넥션’을 끊어내기 위한 당 차원의 고강도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도민과 당원은 변화와 혁신을 명령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후보가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혁신해 전북경제 회복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후보는 “도민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모여져 저 김관영을 유능한 경제도지사 후보로 키워냈듯이, 이번에는 무능한 구태정치를 청산해서 깨끗하고 유능한 김관영에게 큰 힘을 모아달라”고 지지해호소했다.

그러면서 “깨끗하고 유능한 김관영은 전북의 미래다”며 “전북도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후보는 “전북도의 랜드마크가 될 마천루를 대안방직 자리에 올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한 “그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개발의 이익은 도민과 시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김 후보는 “랜드마크 마천루 최상층에는 방송·통신 집적화 타워를 설치해 현재 모악산에 있는 KBS, JTV 등의 송신탑과 KT 등의 통신탑을 옮기겠다”며 “도립공원의 모악산을 전북도민들에게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타워에 전망대를 설치해 새만금과 김제평야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다. 저층에는 상업·문화시설, 중층에는 사무오피스, 주거시설, 고층은 관광명소 등으로 격조 높은 복합 타워로 만들어 전주의 마천루를 대한민국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관영·안호영 후보가 맞붙는 민주당 전북도지사 최종 결선 투표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권리당원 투표(50%), 전 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우리가 원하는 건 공공의료확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전북도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전북도 공공의료 10대 의제 공약화를 요구하며, 각 당의 전북도지사 후보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공공의료정책을 수립해 공약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식, 자문위원 기간 절반 활동 없이 보수받아

삼성전자 자문위원 19개월 중 9개월 활동 없어도 매월 200만원 지급
전관예우 지적 제기... 윤준병 의원 “차기 정부 노동정책 방향성 검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정식 후보자가 삼성전자(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전체 기간(19개월)의 절반에 달하는 9개월 동안은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 없이 삼성전자로부터 매월 2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삼성전자 노사관계 자문위원 활동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정식 후보자는 노사분쟁재단 사무

총장 역임 이후, 지난 2020년 9월부터 4월까지 약 19개월 동안 삼성전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총 3,8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의 자문위원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인사위원 자문회의 7회, ▲경영진 간담회 3회, ▲준법감시위원회 미팅 2회, ▲이사회 미팅 2회, ▲특강 1회 등 총 15차례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했다.

특히, 19개월의 자문위원 기간 중 9개월은 활동 내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절반(47.4%)에 달하는 기간 동

안 자문위원으로서 활동 없이 1,8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이 후보자가 노사분쟁재단 사무총장으로서의 전관예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특히, 자문료가 월 정액임인 하나, 9개월 동안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것은 후보자의 개인적 도덕성을 넘어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은 비롯해 재단 사무총장과 자문위원 이력 사이의 직무관련성,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성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투명한 정치자금 사용, 금권선거 방지”

최영일 순창군수 예비후보
‘십시일반 펀드’ 출시 예정

최영일 순창군수 예비후보가 오는 5월 초 ‘십시일반 최영일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십시일반 최영일 펀드’는 정치자금을 유권자에게 빌려 사용한 뒤 선거가 끝난 후 이자를 쳐서 되돌려 갖는 일종의 정치자금 모금 방법 중의 하나이다.

최영일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하지 논의중이지만 최소 1,000원부터 펀드에 투자 할 수 있다”며 “연 18% 이상 유권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금의 규모는 1억 원 내외로 정해질 것이며, 선거가 끝난 후 시중 정기에금 금리보다 높은 3% 내외의 이자를 빌려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 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펀드운동과 투자참여 방법은

문자나 전화를 통해 순창군민들께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 예비후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십시일반 최영일 펀드는 ‘후보자가 군민에게 투명한 정치자금 집행을 약속하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금권선거로 인한 유권자의 피해를 막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한 유권자는 “최영일 펀드는 군민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이러한 선거문화는 한단계 발전하는 정치참여의 길이다”며 “하루빨리 정착돼 금권선거로 얼룩지지 않는 선거로 가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유호상 기자

“농식품 바우처 지원 추진할 것”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지훈 예비후보가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조지훈 예비후보는 ▲공공급식, 학교급식 등 소비시장 확대 ▲지역 먹거리 세대별 맞춤형 지원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운영 등을 담은 푸드플랜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농산물·먹거리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급식, 학교급식 등부터 지역 농산물·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와 공공기관 등과 생산자를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소비자 조직화,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자발적인 소비문화를 조성하고, 안전 먹거리, 신선 먹거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세대별 먹거리 소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다져 지역 농산물 소비를 늘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시민의 건강을 챙기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체계가 마련돼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5세 이하 아동 무상의료 전면 실시”

서윤근 정의당 전주시장 후보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는 26일 정책발표를 통해, 만 5세이하 아동의 무상의료 전면 실시와 만 6~18세 병역비 50만원 상한제 실시를 공약했다. 서 후보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2로 곧 0.7대로 낮아져 연간 신생아 수가 2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 거주 18세미만 아동에 대한 병역비 본인부담 비용에 대해 50만원 상한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아동이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선진국인 독일,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에서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어린이 병역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상납비가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를 제정해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차액 환자 정산질환자,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 부담금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면서 “만 5세 입원진료비 전면 무상의료 전면 실시에 약 35억과 만 0~18세미만 50만원 상한제로 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안호영 도지사 경선 후보, 현대차 노조와 정책 협약

안호영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가 현대차 노조와 만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소 테마파크 설립과 관련한 정책협약을 진행했다. 안호영 후보는 26일 오전 전주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차주부 전주공공시장위원회 사무실에서 서영우 의장 및 노조 간부와 권오안 전북도의원 예비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정책협약을 진행했다.

안 후보는 “경선 투표가 진행 중이지만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북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더욱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산업 발전, 노동자 안전, 문화관광까지 전북발

전을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져서 매우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주 산업단지에 현대차와 연계한 ‘수소 테마파크’ 설립을 위해 안 후보와 노조 간의 정책협약이 진행됐다.

원주군의 수소 중심 특화도시 선점 노력에 발맞춰 수소 홍보채널을 확대한 ‘수소 테마파크’를 건립하고, 향후 관광자원으로 활용돼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기로 협약했다. 또한, 전북 상용차 산업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대책도 논의됐다. /유호상 기자

도내 100인 교수·연구자 “안호영 경선 후보 지지”

전북도에 기반을 둔 100인의 교수·연구자들이 26일 전북도의회에서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자인 안호영 국회의원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지금 이 지역 현실에 대한 뼈아픈 인식과 자기성찰의 토대 위에서 전북도를 더욱 잘 살게 하는 정책대안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다”면서 “전북도민의 간절한 열망을 모아 전북도지사로서 안호영 후보를 지지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